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본경선 결과 발표

김제·무주·장수·순창
고창 등 5곳 '후보자 확정'
전주 등 나머지 9곳 '결선'
결선 투표는 20~21일 진행
지지층 결집 등 핵심 변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박영자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이 13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기초단체장 본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경선에서는 전체 14개 선거구 가운데 5곳에서 후보가 최종 확정된 반면 나머지 9곳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로 이어지게 되면서 본선 진출을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관위 박영자 위원장과 선관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자 위원장은 13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본경선은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원과 도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방식이다.

경선 결과 김제시장에는 정성주 후보가 선출됐고 무주군수는 황인홍 후보, 장수군수는 최훈식 후보, 순창군수는 최영일 후보, 고창군수는 심덕섭 후보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을 확보하며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이로써 5개 지역은 일찌감치 후보 구도가 확정되며 본격적인 본선 준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특히 김제시장 경선은 당초 4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다자구도로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정성주 후보가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한 번의 투표로 후보로 확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지역 내 조직력과 인지도 지지층 결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나머지 9개 선거구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불가피해졌다. 전주시장 선거구에서는 우범기 후보와 조지훈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고 군산시장 선거구는 김영일 후보와 김재준 후보로 압축됐다. 익산시장 선거구는 조용식 후보와 최정호 후보가 맞붙으며, 정읍시장 선거구에서는 이상길 후보와 이학수 후보가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된다.

남원시장 선거구에서는 양충모 후보와 이정린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으며, 완주군수는 유희태 후보와 이돈승 후보 간 경쟁으로 이어진다.

진안군수는 이유규 후보와 진춘성 후보가 임실군수는 김병이 후보와 한득수 후보가 각각 결선에서 맞붙는다. 부안군수 선거구 역시 권익현 후보와 김정기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결선에서는 후보 간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보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경선을 통해 일부 지역 후보가 조기예 확정된 만큼 조직을 신속히 정비하고 민생 중심 정책을 앞세워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결선투표를 앞둔 지역에서는 후보 간 합종연횡과 지지층 이동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평가에서는 "이번 경선이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향후 본선 구도까지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본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안정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본선 준비에 돌입하고, 결선 진출 후보들은 짧은 기간 내 승부를 결정시켜야 하는 만큼 막판 총력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도, 올해 정부 추경 13개 사업 3118억원 확보 민생·산업 투자 동시 챙겼다

고유가 민생 지원부터 K-로봇 미래산업까지 전방위 포진
최종 확보액 늘어날 전망... 김 지사 "신속 집행에 사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13개 사업, 3,118억 3,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부처 풀예산 배분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공모사업 대응에 따라 최종확보액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 26조2,000억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전북은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 등에 걸쳐 예산을 끌어냈다. 확보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국비 2,471억원이 배정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 약 141만8,000명이 1인당 10~60만 원을 지원받는다. 1차로 4월 27일부터 차상위·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2차로 이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도민 전방위로 대상을 확대해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도민들을 도울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성장펀드(국비 600억원, 총사업비 1,000억원)가 추경에 포함됐다. 당초 공모 선정 기준이 특정 연구 거점 대학 소재지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도와 민주당 행방도 원내대표가 함께 기획처, 국회 등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추가 반영을 이끌어냈다. 확보된 펀드는 도내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안에 없던 K-로봇 피지컬 AI 실증 공유센터 구축 전략수립 기획 용역비(국비 5억 원)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동영 의원의 공조로 증액

반영됐다. 이는 국산 로봇 부품 실증 환경 구축과 양산 지원 등 총사업비 218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을 따낸 것이다. 이로써 전북이 로봇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됐다.

에너지 관련 지원도 함께 반영됐다. 에너지 바우처(10억원)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며,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8억5,000만 원)은 고유가 부담을 안고 있는 화물 운송업체를 겨냥한 조치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7억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연인화물선 유류비·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4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수급인정 지원(5억4,000만원)도 편성돼 농업 현장의 비용 부담 완화에 대응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돌봄 보조 인력지원(4억7,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차량 유류비 지원(1억8,000만원),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3,000만원), 먹거리 기본보장 운영지원(6,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돌봄·의료·식품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별 집행 계획을 즉시 점검하고 행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려운 대의 여건 속에서도 전북민의 탄탄한 논리로 소중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번 성과는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 맞물려 이뤄낸 공조 결실이며, 확보된 모든 예산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신속 집행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에 일자리·주거·교통 함께 들어선다'

국토부, 투자지원 TF 가동... 현대차 9조 투자 실현 '속도전'

투자 실행을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를 본격화했다. 이번 TF는 지난 2월 투자협약을 통해 발표된 현대자동차 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투자 계획은 로봇·수소·AI

기반의 미래형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며, 국토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설계부터 교통망 주거환경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새만금 개발의 주무

부처로서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규제와 제도적 장애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즉각 반영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난 3월 출범한 '새만금·전

북 대혁신 TF'와의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을 첨단 성장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토·교통·주거 분야 2개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AI 도시 조성을 위한 로봇·자율주행 친화형 도시 설계와 함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특례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추

진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새만금 철도 등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소 인프라 확충으로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주택 분야에서는 투자기업 종사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문화·여가시설 조성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이만호 기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읍성